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보고 체험해야 하는 통제 원칙들

7/1 월요일

아침의 누림

골 2:6-7

6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7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 나게 하십시오.

갈 5:16

16 내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갈 3:14

14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즉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딤후 4:22

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롬 8:4, 6, 10-11, 13, 16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13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골로새서 2 장 6 절에서 행한다는 것은 살고 활동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에 살면서 그 땅의 모든 풍성한 소산물을 누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살고 활동해야 한다. 좋은 땅은 오늘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갈 3:14)이다.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딤후 4:22, 롬 8:16) 우리의 누림이 되신다. 이 영을 따라 행하는 것(롬 8:4, 갈 5:16)이 신약의 중심이며 중점이다.(골 2:6 각주 2)

갈라디아서 5 장의 문맥에 따르면 16 절의 그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성령인 것이 틀림없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한받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영역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한받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육체는 세 부분으로 된 타락한 사람이 극도로 표현된 것이고(창 6:3), 그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실재화되신 분이시다(요 7:39).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영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배를 받은 우리는 육체, 곧 우리의 타락한 존재를 따라 행하는 대신, 그 영,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따라 행할 수 있다. 바울은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서는 빛나간 갈라디아 믿는 이들을 율법에서 건져 내기 위하여 갈라디아서를 썼다. 더욱이 긍정적인 것을 이루는 면에서는 믿는 이들의 영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그들이 이러한 생명 주시는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를 썼다.(갈 5:16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율법의 의로운 요구’는 우리가 외적으로 노력해서 의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의 내적 작용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도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명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한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영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 행할 때, 우리를 통하여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자연스럽게 이루신다.(롬 8:4 각주 3)

‘행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 생활 중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을 나타낸다. ...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작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행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영을 따라 행함(롬 8:4), (2)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함—생각을 영에 둠(롬 8:5-6), (3)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임(롬 8:13), (4)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영의 인도를 받음(롬 8:14), (5) 아들의 자격의 영 안에서 아버지께 외침(롬 8:15), (6)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함(롬 8:16), (7) 완전한 아들의 자격, 즉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하여 탄식함(롬 8:23).(롬 8:4 각주 1)

디모데후서는 우리의 영을 대단히 강조한다. 이 책의 시작 부분에서는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생명을 분배하는 은혜를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딤후 1:6-10). 결론 부분에서 이 책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축복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하락시키는 흐름에 대항하여 서기 위하여,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딤후 1:14)과 장비시키는 말씀(딤후 3:16-17)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님을 은혜로 누릴 수 있다.(딤후 4:22 각주 1)

교회의 타락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비통한 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이다. 이 은혜는 영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딤후 1:9),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다. 파괴할 수 없는 생명 안에 있는 이 은혜는 다름 아닌 바로 그리스도, 곧 신성한 생명의 체현이시며,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충분한 은혜(고후 12:9)이신 이 그리스도의 풍성(엡 3:8)을 누려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신성한 모든 실재들(진리들)을 지닌, 그리스도의 증거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의 경건(딤후 4:7-8)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딤후 4:22 각주 2)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3-1974년, 1 권, 단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체험, 1 장

것입니다.

24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5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니다.

빌 1:19-21

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합하는'은 믿는 이들이 주님을 믿어 주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가리킨다(요 3:15-16). 이 연결은 포도나무와 가지들이 연결된 것으로 설명된다(요 15:4-5). 이것은 생명에 '속한' 문제일 뿐 아니라 생명(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문제이다. 부활하신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영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전 6:17 각주 1)

'한 영'은 그 영이신 주님과 우리 영의 연합을 가리킨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고(요 3:6), 하나님의 영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며(고전 6:19), 우리 영과 하나이다(롬 8:16).(고전 6:17 각주 2)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2 장과 3 장에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 영이셨다. 그런데 22 장 17 절에서는 신부인 교회와 그 영께서 하나가 되시어 함께 말씀하신다. 이것은 교회가 그 영을 체험하는 것이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이신 그 영과 하나 되는 정도까지 진보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계시가 우주적인 한 부부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본다. 성경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즉 육체가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을 통과하시어 최종적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삼일 하나님(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창조되고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세 부분(영과 혼과 몸)으로 된 사람과, 즉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표현인 교회로 조성된 사람과 연결되시어 결혼하시는 이야기이다. 끝없이 영원토록, 그들은 신성하고 영원하며 비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한 영으로 연합된 생활, 즉 축복과 기쁨이 넘쳐흐르는 탁월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계 22:17 각주 1)

요한계시록 22 장 17 절에 있는 '오십시오!'는 ...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응답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십시오!'라고 말함으로써,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공통적인 갈망을 표현해야 한다.(계 22:17 각주 2) 그 영과 신부는 한편으로 주님께서 오시기를 갈망하시며, 다른 한편으로는 목마른 죄인도 와서 생명수를 마시어 만족을 얻게 되기를 열망하신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하여 진지한 갈망을 가질 때, 우리는 또한 죄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도 열렬한 관심을 갖게 된다.(계 22:17 각주 3)

하나님께서 단체적인 신부와 결혼하신다는 사상은 사람의 관념이 아니라 신성한 책인 성경의 계시이다. 창세기 1 장부터 요한계시록 22 장까지는 '미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성(城) -신부와 결혼하시는 것을 계시한다. 이와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께는 한 아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결혼하신 하나님이실 것이다. 성경의 예표에서, 남편과 아내는 언제나 하나이다. 창세기 2 장 24 절은 "그들이 한 몸이 된다."라고 말한다. 또한 고린도전서 6 장 17 절은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7/2 화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계 22:17

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요 4:24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요 3:6

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갈 5:16, 24-25

16 내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주님과 한 영입니다.”라고 말한다. 주님과 우리는 더 이상 둘이 아니다.

주님과 우리는 참으로 하나이다. ... 완전한 사람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결혼하지 않은 형제는 단지 절반에 불과하다. 그 형제가 자신과 어울리는 자매를 찾아 결혼할 때 그는 온전해진다. 완전한 수박 한 덩어리를 얻으려면 두 절반이 필요하다. 배필이 없다면 우리는 수박 반쪽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참으로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그리스도는 첫 번째 절반이시고 우리는 두 번째 절반이다. 이러한 이유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르기 전에는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는다. 어린양의 결혼 날이 이를 때 할렐루야가 나온다. 오늘날 교회생활은 그 결혼식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우리는 그 결혼식을 미리 맛보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3-1974 년, 1 권, 단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체험, 1 장, 706-70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3-1974 년, 1 권, 단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체험, 2 장

7/3 수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5:45

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계 21:2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 17:21

21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여 주십시오.

엡 4:4-6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시다.

5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6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계 19:7-9

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8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9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계 21:9-10

9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발전이 있다. ... 창세기 1 장 1 절에서 하나님은 홀로 계셨다. 물론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풍성하시고 완전하시며 온전하신 분이셨지만, 그분께는 그분과 어울릴 누군가가

없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홀로 계신 것이 좋지 않음을 아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창 1:26, 2:18). 하나님께서 ‘미혼’으로 계신 것은 좋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분께 어울리는 짝 곧 배필을 얻기 원하셨다.

어느 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 안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처녀의 태 속에 잉태되셔서, 결국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다(마 1:18).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 그분은 ‘무언가가 더해진 하나님(God-plus)’이 되셨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의 이름은 다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임마누엘이었다(마 1:23). ...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무언가가 더해진 하나님이다. ... 사복음서에서 ...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미혼이신’ 하나님에서 육체 되신 하나님으로 진보한 것을 볼 수 있다. (위트니스리 전집, 1973-1974 년, 1 권, 단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체험, 2 장, 716-71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점진적인 계시의 셋째 단계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다. ... 육체 되신 하나님은 십자가로 가셨다. ...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하시므로 그분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굴복시키셨으며 죽음 밖으로 걸어 나오셨다. 이것이 육체 되신 하나님이시자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 밤에 놀라운 방식으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오셨다. ... 주님은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 계시면서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받으십시오.”(요 20:22)라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에 그분은 더 이상 단지 구속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셨다. 그분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하). ... 내 주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영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넷째 단계이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다섯째 단계는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발견된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은 ‘결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신의 모든 사람들과 합병되신 것을 의미한다. 창세기 1 장에서 하나님은 ‘미혼이신’ 하나님으로 계시되신다.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은 육체 되신 하나님으로 계시되신다. 복음서들의 끝에서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하나님은 내 주하시는 하나님, 곧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다.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합병되신 하나님이 되신다.

요한계시록 21 장 2 절은 신부인 한 성을 묘사한다. 거룩한 성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살아 있는 성이다. ...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의 이름들이 성에 있다는 것(21:12-14)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성도들이 성에 포함될 것임을 상징한다.

우리는 합병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 요한계시록의 끝에 이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서신서들에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합병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몸은 합병된 한 실체이다(비교 고전 12:12-13).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각 단계에서 계시되신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 육체 되신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 내 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합병되신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분의 합병체 안에 있다. 이 합병체는 오늘날 새 예루살렘의 미리 맛봄인 교회생활이다. 합병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각 단계에 계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하나님을 누리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생명수의 강의 흐름을 느끼며, 하나님과 사람의 궁극적인

합병체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미리 맛봄을 체험하고 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3-1974 년, 1 권, 단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체험, 2 장, 718-722, 724, 726-72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 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1 장

7/4 목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2:12

12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골 2:6-7

6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7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 나게 하십시오.

행 9:4-5, 15

4 그가 땅에 엎어졌다. 그러자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

5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15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된 그릇이다.

요 14:23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골 2:19

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엡 4:15-16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 장 12 절에 언급된 ‘그리스도’는 직역하면 ‘그 그리스도’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몸인 교회, 즉 지체들인 모든 믿는 이로 구성된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이가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그분의 생명과 요소로 조성되어, 그분을 표현하는 유기체인 그분의 몸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머리이실 뿐 아니라 몸이다. 우리의 물질적인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인 것같이 이러한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다.(고전 12:12 각주 2)

골로새서 2 장 6 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해야 할 분은 합병되신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몸-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도는 단체적인 몸이시기 때문이다(고전 12:12).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3-1974 년, 1 권, 단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체험, 4 장, 74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만 그리스도만 주의할 뿐 교회는 주의하지 않는다. ...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모두 주의할 때 그리스도의 풍성을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주 예수님, 저는 당신께 주의를 기울이며 또한 당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께서 머리이시며 교회는 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몸은 없이 머리만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 예수님, 저는 오늘날 당신께서 더 이상 단지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몸과 함께하시는 머리이심을 압니다. 당신은 몸-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 저는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몸도 받아들입니다. 저는 몸-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를 갈망합니다.”

단체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강탈당했다. 대부분이 영적으로 빈곤하고 약한데, 그 이유는 그들이 단지 그리스도만 주의할 뿐 교회는 주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교회생활 안에 들어와 교회를 주의하기 시작한 이후로 영적인 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증언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풍성하다는 내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역만장자이다. 우리는 모두 부자이다.

우리는 몸 안으로 침례 받았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몸이 무엇인지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 장 12 절이 “교회도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라고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 절은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끝난다. 이 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몸-그리스도, 몸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고린도전서 12 장 12 절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지체들을 포함한 몸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계시한다. 이것이 몸-그리스도, 곧 합병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몸 안에 있고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몸-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 어떤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꼭 집회에 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만일 그들이 혼자 머문다면, 개인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작은 몫은 누릴지 모르지만 결코 몸-그리스도의 풍성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교회 집회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한 몫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각 사람은 입을 열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해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집회에 와서 입을 활짝 열어 그리스도의 풍성을 해방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몫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몫을 공유하고 다른 이들의 몫을 누릴 필요가 있다.

몸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는 것은 신체의 혈액 순환에 비유할 수 있다. ...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더 많은 피를 내보내는 지체일수록 더 많은 피를 받아들인다. 우리가 입을 활짝 열어 그리스도를 더 많이 해방할수록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오신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집회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몫을 해방할 필요가 있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3-1974 년, 1 권, 단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체험, 4 장, 747-748 쪽, 3 장, 739-74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3-1974 년, 1 권, 단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체험, 3-4 장

7/5 금요일

아침의 누림

출 33:14-15

14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15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님의 임재가 저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희를 여기에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출 13:21

21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시어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셨다.

출 33:12-13, 16-17

12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주님은 저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알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또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13 그러니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부디 저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제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16 이제 저와 주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저와 주님의 백성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과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해 주겠다. 이것은 내가 내 앞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기 때문이다.”

시 119:105

105 1 (눈)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제 길의 빛입니다.

렘 23:29

29 나의 말이 불과 같고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 같지 않느냐? 여호와와 선포이다.

모세는 출애굽기 33 장 12 절부터 17 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과 백성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교섭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보여 주는 '지도'이다(비교 요 14:6 과 각주 1, 히 11:8 과 각주 1).(출 33:14 각주 1)

성경의 예표에서 구름은 그 영을 상징하고(고전 10:1-2 와 1 절 각주 4, 2 절 각주 1) 빛을 내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시 119:105).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영이나 말씀을 통하여 즉각적이며 생생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두 기둥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그 영이실 뿐 아니라 말씀이시기 때문이다(요 4:24, 1:1). 더욱이 말씀은 그 영이다(요 6:63, 엠 6:17). 따라서 하나님과 말씀과 그 영은 하나이시며, 밤낮으로 계속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낮과 밤의 차이가 없는데, 왜냐하면 불 기둥이 내는 빛이 밤을 낮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출 13:21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첫 번째 통제하는 원칙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이다. ... 이 기둥들에 있는 주님의 임재가 첫 번째 통제하는 원칙이다. 이 요인은 주님의 백성의 모임과 활동 또는 움직임과 관계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의 백성이 움직이고 행동해야 하는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타난 주님의 임재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속 전진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임재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출

33:14)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때 모세는 주님께 “주님의 임재가 저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희를 여기에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33:15)라고 말했다. 모세는 주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그러지 않으면 가지 않으려고 했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이것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다. ‘임재’가 함께할 것이다. 이것은 그분께서 가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분께서 가시는 것’과 ‘그분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여러분은 이 차이를 알겠는가?

한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 보겠다. 한번은 주님을 섬기는 형제 네다섯 명이 어떤 곳으로 가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여행을 했다. 그때 한 형제가 우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모두 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다. 이 한 형제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모두 첫째 칸에 타고 있었고, 그는 둘째 칸에 홀로 타고 있었다. 그는 우리와 함께 갔다. 그러나 그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와 함께 떠났고, 우리와 함께 여행을 했으며, 우리와 함께 도착했다. 그러나 그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한 것은 아니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만 많은 경우 그분의 임재는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경우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겠지만 우리에게 대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움을 받겠지만 그분의 임재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분은 여러분을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겠지만, 그 여행 내내 여러분은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실지라도 ‘그분의 임재’는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11 장, 178-180 쪽)

여호와와 천사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께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천사께서 움직이실 때에 기둥도 움직였는데, 이것은 천사와 기둥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스도와 인도하시는 영은 분리될 수 없으시다(요 14:17-20, 16:13, 고후 3:17, 계 5:6).(출 14:19 각주 1)

추가로 읽을 말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10-11 장;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8

7/6 토요일**아침의 누림****출 31:3**

3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로 충만하게 하였으니,

골 4:2

2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벧전 2:5, 9

5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9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막 6:30-32, 45-46

30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보고하니,
3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은 따로 외딴곳에 가서 잠시 쉬십시오.”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32 그러자 그들이 배를 타고 따로 외딴곳으로 가는데,
45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에 태우시고 건너편 벳새다로 먼저 가게 하셨으며, 그동안에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46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셨다.

출애굽기의 기록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성막은 하나님 자신께서 설계하셨다. 그러나 ... 성막은 그분에 의해 직접 건축되지 않았다. 성막은 그분으로, 곧 그분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분의 백성에 의해 건축되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자신이다. ... 하나님의 영은 ... 우리에게 도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달하실 때, 이렇게 도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 영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3 년, 1 권, 장로들과의 실제적인 담화, 7 장, 105-10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혼자서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실 수 없다. 그분은 뜻을 세우고 비워진 그릇들을 통해서만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실 수 있다. 교회가 살아 있고 신성하고 풍성한지의 여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영으로 채워지는 이 한 가지에 달려 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위해 우리는 첫째로 뜻을 세우고, 둘째로 비워져야 한다.

셋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 우리는 자신을 비워야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쓸모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실 뿐 아니라 유죄판결 하신다. ...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볼 것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기도할 것이다.

교회의 장로들은 특별한 부류가 아니다. 장로는 특별한 계급이 아니다. ... 장로들은 다만 정상적인 믿는 이들이다. 그들은 다른 믿는 이들이 따라야 할 본을 세우는 이들일 뿐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모든 믿는 이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살전 5:17)고 말할 때, 장로들은 본을 세워야 한다. 장로들은 신약에서 믿는 이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실행해야 한다. ... 여러분은 앞장서서 인도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실행해야 한다. 모든 믿는 이가 이것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뜻을 세우는 것과 비워짐과 기도가 부족하다면 나는 여러분을 도울수 없다. 또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당신의 긍휼로 저는 뜻을 세웁니다. 당신의 은혜 안에서 제 자신을 비웁니다. 완전히 비워지고 당신 앞에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과거에 체험한 어떤 것도 붙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신선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끊임없이 주님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와 이해와 지식이 여러분에게 조수처럼 밀려오는 것을 체험할 것이다. 여러분은 신성한 지혜와 신성한 이해와 신성한 지식의 홍수 아래 잠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신성한 본성으로 접촉하는 법과,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법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세우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또한 변화와 교회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을 세워 줄 수 있는 내적 능력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단지 그들의 성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을 위한 거처로 세우는 것이다.

어떤 지방에서든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은 모든 장로의 지속적인 기도이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그 영이 부족하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철저히 유죄판결 받는 그때, 여러분은 상황과 사람과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지혜와 참된 이해를 얻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도의 생활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3 년, 1 권, 장로들과의 실제적인 담화, 7 장, 109-111, 113-114 쪽)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우리가 기꺼이 주님과 교섭하고 심지어 그분께 서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모든 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이러한 교섭을 한다면, 회복은 크게 풍성해지고 높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 성도들은 주님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즉각적이고도 지속적인 기름바름을 누릴 것이다. 온종일 그들은 주님의 얼굴의 미소를 누릴 것이다. 우리가 기도에 꾸준히 힘쓸 때,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인격이 우리의 체험과 누림이 될 것이다.(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5, 65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3 년, 1 권, 장로들과의 실제적인 담화, 7 장;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5

추가로 읽을 말씀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6쪽

찬송: 1195 (英) 비밀한 생명 이는 하나님 그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네)

5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옛사람 지식 끝낸 주 예수 부정적인 것 모두 끝냈네 죽음도 그가 정복하셨네.

6 부활하신 주 마지막 아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네 주 예수 믿고 이름 부를 때 그는 내 안에 오셔 거하네.

7 삼일 하나님 지금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연합되었네 우리는 주와 하나 되었네 영원히 주와 하나 누리네.

8 온전히 영을 따라 행하네 영 안에 살며 보며 생각해 놀라운 생활 영 안의 생활 하나님 충만 맘껏 누리네.

9 우리의 생각 그분께 두네 매 순간 생각 영 안에 두네 이 영 인하여 구원 누리며 속생명 인해 모두 정복해.

10 이 영 인하여 해방되겠네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죽음의 몸이 생명 얻겠네 범사에 거룩하여지겠네.

11 우리의 본성 번케 하는 영 자아로부터 우릴 구원해 주님과 같은 형상 될 때에 하나님 계획 완성되겠네.

7/7 주일

아침의 누림

엡 6:18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엡 4:23

23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롬 15:16

16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딤후 3:5

5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고후 3:18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계 21:11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계 22:17

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Churchwide Truth Pursuit of Hebrews (Week 20)

Level 1—Hebrews Sequential Reading

Scripture Reading and Copying: Heb. 7:11-19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gs. 35-36

Level 2—Hebrews Topical Study

Crucial Point: Solid Food and the Word of Righteousness

Scripture: Heb. 5:11-6:9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gs. 29, 58-60

Supplemental Reading: *Everyone Speaking the Word of God*, ch. 4

Questions:

1.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milk and solid food?
2. What is the word of righteousness and why is it for the full-grown and not the infant?
3. In Heb. 5:14, what does it mean to have our “faculties exercised for discriminating between both good and evil?”
4. Based on Heb. 5:11-14, what are a couple of possible reasons that we are inexperienced in the word of righteousness?